

1990년대 무렵 국내에서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과 다뉴브 강 유람선 침몰 등 각종 사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외상 사건과 PTSD 증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내 대학생 대상 설문결과, 응답자의 97.9%가 하나 이상의 외상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신지영, 이동훈, 이수연, 한윤선, 2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PTSD 환자가 매해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PTSD 증상은 악화될 경우 자살사고 및 자살 행동 등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Tarrier, & Gregg, 2004), PTSD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치료적 개입의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DSM-5는 외상사건 갑작스러운 죽음, 신체적 상해, 성폭력,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개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났음을 알게 될 때 개인은 ‘침습/재경험’,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과각성’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APA, 2013). 뿐만 아니라 많은 PTSD 증상 경험자들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함께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lea, & Resnick, 2005; Neria, Nandi, & Galea, 2008). 심리적 디스트레스란

슬픔, 두려움 같은 일상적 감정부터 우울, 불안, 신체화, 부정적 사고 등 역기능적 문제까지 다양한 범위의 심리적 고통을 의미하며(Zimmermann, 2015), 이러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외상 사건 이후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일상생활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훈, 김지윤, 이덕희, 강민수, 2018).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외 연구에서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Marshall, Schell, & Miles, 2010; Tay et al., 2016). 해외의 경우 외상사건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Montazeri et al., 2005; Wiesel, & Amir, 2000), 국내 연구는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함께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PTSD 증상과 함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성인에게 나타나는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기존의 PTSD 관련 연구는 대부분 특정한 변인 중심연구, 또는 군집분석 위주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인중심의 분석은 PTSD 증상의 개별적 특징과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Bonanno, 2004; Layne, Warren, Watson, & Shalev, 2007), 군집분석은 통계적 수치가 아닌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최적의 집단 수를 정하며, 사용할 수 있는 척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Vermunt, & Magidson, 2002). 이를 보완하여 적용된 통계 방법이 바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이다. LPA는 기존 군집분석과 달리 통계적 기준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고 여러 척도로 다양한 변인들을 측정하여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Vermunt, & Magidson, 2002),

변인중심이 아닌 인간중심분석(person-centered analysis)으로, 개인의 증상 수준 및 심각도 양상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Rosellini, Coffey, Tracy, & Sandro Galea, 2014). 뿐만 아니라 회귀분석을 함께 진행하여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Clark, & Muthén,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LPA를 통해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할 것이다.

다수의 LPA 선행연구는 주로 PTSD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Breslau, Reboussin, Anthony, & Storr, 2005; Nugent, Koenen, & Bradley, 2012; Steenkamp et al., 2012), PTSD 증상과 더불어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심리적 디스트레스 등의 정신병리를 분석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증상의 심각도와 공병률에 따른 하위집단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왔다(Armour et al., 2015; Contractor, & Weiss, 2019; Rahman et al, 2018; Tay et al., 2016). 일례로 Hruska, Irish, Pacella, Sledjeski, 그리고 Delahanty(2014)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PTSD의 심각도와 주요우울장애의 공병률에 따라 총 네 집단으로 구분했으며, 네덜란드 참전군인을 대상으로 LPA를 실시한 Jongedijk, van der Aa, Haagen, Boelen과 Kleber (2019)의 연구에서는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심각도에 따라 집단을 총 세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처럼 증상의 심각도에 따른 하위집단 분류는 집단 내에 서로 다른 양상의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ahman et al, 2018).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국내에는 LPA를 활용한 PTSD 연구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DSM-5 이후 확대되고 있는 외상 사건의 범위와 맞지 않게 일반 외상사건 경험자가 아닌 임상군이나 참전군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심각도에 따른 LPA를 실시할 것이다.

미국정신의학회(APA, 2013)에 따르면 외상사건 이후 나타나는 PTSD 증상의 여부, 종류 및 지속기간은 개인별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개인차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성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여성이 남성보다 PTSD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이다(김지윤, 이동훈, 이덕희, 2018; Ben Ezra et al., 2018; Costello, Erkanli, Fairbank, & Angold, 2002).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Kessler, 2006; Leach, Christensen, Mackinnon, Windsor, & Butterworth, 2008; Torres, Miller, & Moore, 2013). Hruska 등 (2014)의 LCA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와 심각한 PTSD 증상을 동시에 보고하는 고위험 집단 구성원이 전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에 대하여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성인들의 성별에 따른 집단 구분의 차이를 확인하고, 각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인지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PTSD 증상 중 침투 및 재경험 증상의 원인으로 인지적 과정을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Brewin, Dalgleish, & Joseph, 1996;

Ehlers, & Clark, 2000; Ehlers, Hackmann, & Michael, 2004), 증상을 호소하는 개인은 침투 기억을 마치 현재의 일인 양 생생하게 느끼며,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미적, 일화적 기억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능력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Blix, & Brennen, 2011; Nyberg, Kim, Habib, Levine, & Tulving, 2010; Zlomuzica et al., 2018). Zimbardo와 Boyd(1999)는 시간관(Time Perspectives; TP)이라는 개념을 통해 PTSD 증상을 설명한다. 모든 개인은 기억체계를 통해 과거와 미래 시간을 오고 갈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주관적 태도 및 지향성을 지니는데(Stolarski, Fieulaine, & van Beek, 2015; Zimbardo, & Boyd, 1999), 이를 시간관이라 한다. 과거 부정(past-negative), 과거 긍정(past-positive), 현재 쾌락(present-hedonistic), 현재 숙명(present-fatalistic), 미래지향(future) 총 5 가지로 분류되는 시간관은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인지적 과정,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Lasane, & O'Donnell, 2005; Stolarski et al., 2015; Zimbardo, & Boyd, 1999).

여러 선행연구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하나에 시점에 편향된 시간관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시간관의 편향은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şoğlu et al., 2005; Feeny, & Foa, 2006; Zimbardo, & Boyd, 1999). 일례로 Stolarski와 Cyniak-Cieciura(2016)의 연구에서는 심각한 외상사건에 노출되어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대처방식의 유연성이 적은 사람일수록 부정적 시간관에 편향된 양상을 띠었으며, 부정적 시간관은 PTSD 증상의 발전을 야기하였다. 또한 통제력의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두

려움 및 불안감이 PTSD와 우울 증상에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Basoğlu et al., 2005; Otrar, Eksi, Dilmac, & Sikin, 2002; Stolarski et al., 2015). 이 외에도 McKay, Andretta와 Cole(2017)의 연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증상을 보고했다. 특히 과거 부정적 시간관은 외상 사건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며(Place, Ling, & Patihis, 2018), 높은 수준의 우울 및 자살사고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Beek, Berghuis, Kerkhof, & Beekman, 2010).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시간관을 적절히 이해하여 균형적 시간관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균형적 시간관이란 특정한 시간관에 치우치지 않고 주어진 개인적, 환경적, 직업적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적응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간관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하며(Zimbardo & Boyd, 1999), 이러한 균형적 시간관은 PTSD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균형적 시간관은 행복과 같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Boniwell, & Zimbardo, 2004; Drake, Duncan, Sutherland, Abernethy, & Henry, 2008; Gruber, Cunningham, Kirkland, & Hay, 2012; Webster, & Ma, 2013; Zhang, Howell, & Stolarski, 2013), Sobol-Kwapinska와 Jankowski(2016)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현재 숙명과 과거 부정적 태도, 강한 과거 긍정적 태도, 적당한 미래에 대한 초점 그리고 활동적인 현재에 대한 초점으로 이루어진 균형적 시간관은 삶에 대한 긍정적 지향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개인의 편향된 시간관은

PTSD 증상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균형적 시간관을 유지함으로써 과거와 미래의 기억을 자유롭게 오가며 삶의 기능을 점차 회복할 수 있다.

시간관은 여러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 중 문화와 성별에 따라 시간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ly, & Mercurio, 2011; Greene, & DeBacker, 2004; Usunier, & Valette-Florence, 2007). Zimbardo와 Boyd(1999)의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과거긍정과 미래 시간관을 보고했으며, Ely와 Mercurio(2011)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과거 긍정과 미래 지향성이 유의미하게 높고 과거 부정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Greene와 DeBacker(2004)는 남성이 여성보다 미래 지향적 태도가 높으며, 더 자주 과거 부정적 관점에서 회상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국내의 경우 한국형 짐바르도 시간관 척도 타당화 연구(윤소정, 김정섭, 2012)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과거 부정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고했으며, 스웨덴 짐바르도 시간관 척도를 한국형으로 타당화한 논문(박희은, 김기호, 이장한, 2017; 이덕희, 2019)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과거 긍정과 현재쾌락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시간관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간관을 활용한 치료적 개입의 초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외상사건 경험자를 대상으로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증상에 따른 집단 구분에 시간관이 미치는 영향력을 성별에 따라 확인할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LPA를 활용하여 집단별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인간

중심 분석인 LPA를 활용하여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잠재집단을 구분함으로써 집단별 양상의 차이를 확인할 것이며, 그에 따른 구체적 치료적 개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외 선행 연구에서도 성별을 인구학적 변인에서 분류하여 따로 남녀 간 증상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증상패턴을 따로 분석함으로써 성별의 차이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외상사건 경험자의 시간관이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잠재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사건을 경험한 국내 성인의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잠재집단은 성별에 따라 각각 몇 개의 특징적인 집단으로 구분되는가.

둘째, 성별에 따라 잠재집단 구분에 시간관(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쾌락, 현재숙명, 미래지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성인의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잠재계층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이러한 계층 구분에 시간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성인 1,137명을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비율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7년도 중견연구지원사업(과제번호:

NRF-2017S1A5A2A01025729)의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은 온라인 설문 기관인 'EMBRAIN'을 통해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0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 참여자는 총 1,137명 이었으며, 모든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로 응답하였을 경우 이를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하여 71명(6.2%)을 제외하였으며, DSM-5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외상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206명(18.1%)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자는 860명이다. 본 설문은 연구자의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SKKU 2015-01-006-14).

측정 도구

일생 사건 체크리스트(Life Event Checklist; LEC-5)

본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가 DSM-5에 진단기준에 포함된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Weathers, Blake, Schnurr, Kaloupek, Marx, Keane(2013)이 제작한 일생 사건 체크리스트 5판(Life Event Checklist; LEC-5)을 사용하였다. LEC-5는 자연재난, 화재, 교통사고 등 DSM-5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17가지의 외상 사건에 대한 경험 유무를 '직접 겪음', '목격함', '알게됨', '업무 관련 경험', '불확실'의 5가지 항목으로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항목들 중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5판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5: PCL-5)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PTSD 증상 수준을 측정하고, 국내 성인의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Weathers, Litz, Herman, Huska와 Keane (1993)이 제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PCL)를 Blevins, Davis, Witte와 Domino(2015)가 DSM-5의 진단체계를 적용하여 개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5판(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5: PCL-5)을 사용하였다. PCL-5는 '재경험(예: 그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악몽을 반복해서 꾸다.)' 5문항, '회피(예: 그 스트레스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외부의 자극을 피한다.)' 2문항, '감정과 분위기의 부정적 변화(예: 두려움, 공포, 분노,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7문항, '과각성(예 : 잠들기가 어렵거나 깨지 않고 쪽 자기가 어렵다)' 6문항으로 총 20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님(0점)'부터 '매우 많이(4점)'까지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재경험', '회피', '감정과 분위기의 부정적 변화', '과각성' 각각 0.92, 0.90, 0.92, 0.93 이었다.

간이정신진단 검사-18(Brief Symptom Inventory- 18; BSI-18)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국내 성인의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Derogatis(1977)가 개발한 SCL-90-R (The Symptom Checklist-90-Revised)을 Derogatis (2001)가 축약한 간이정신진단 검사-18(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을 박기쁨, 우상

우, 장문선(20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 검사-18(Brief Symptom Inventory-18; BSI-18)를 사용하였다. BSI-18은 ‘우울(예: 허무한 느낌이 든다.)’ 6문항, ‘불안(예: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6문항, ‘신체화(예: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다.)’ 6문항으로 총 18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우울’, ‘불안’, ‘신체화’ 각각 0.91, 0.92, 0.90이었다.

단축형 짐바르도 시간관 척도-15(Short version of th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15)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시간관을 측정하고, 국내 성인의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라 분류된 계층 구분에 시간관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Zimbardo와 Boyd(1999)가 개발한 짐바르도 시간관 척도(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에 Carelli, Wiberg와 Wiberg(2011)가 ‘미래 부정’과 관련된 8문항을 추가한 Swedish 짐바르도 시간관 척도(Swedish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S-ZTPI)를 Košťál 등(2016)이 단축화한 단축형 짐바르도 시간관 척도(Short version of th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를 이덕희(2019)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단축형 짐바르도 시간관 척도-15(Short version of th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15; ZTPI-15)를 사용하였다. ZTPI-15는 ‘과거부정(예: 나는 내 삶에서 달리 했어야 했던 것에 대해 생각을 자주 한다.)’ 3문항, ‘과거긍정(예: 어린 시절의 경험과 비슷한 장면이나 소리,

냄새들은 좋은 추억들을 불러일으킨다.)’ 3문항, ‘현재숙명(예: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날 테니 내가 하는 일은 소용이 없다)’ 3문항, ‘현재쾌락(예: 내 인생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3문항, ‘미래지향(예: 나는 꾸준히 일해서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완성한다.)’ 3문항’으로 총 15문항 5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숙명’, ‘현재쾌락’, ‘미래지향’이 각각 0.69, 0.75, 0.61, 0.34, 0.67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분류된 잠재계층 구분에 시간관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층 분류와 시간관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21.0과 Mplus 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1.0을 통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Mplus 8.0을 통해 국내 성인의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계층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응답양상에 따라 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연구방법인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LMR-LRT(Lo-Mendell Rubin Likelihood Ratio

Test), Entropy 지수를 확인하였다. 이때 AIC와 BIC의 경우 일반적으로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며(Nylund, Asparouhov, Muthen, 2007), Entropy 지수의 경우 Wang 등(2012)의 제안에 따라 0.8 이상일 경우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집단의 결정에 있어 각 집단의 비율이 전체 대상의 1%이하일 경우 하나의 집단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ill, White, Chung, Hawkins, & Catalano, 2000). 마지막으로 국내 성인의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3단계 접근 방법(three-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홍세희, 2019; Asparouhov & Muthén, 2014; Vermunt, 2010). 3단계 접근 방법은 그동안의 1단계 접근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잠재 공변량의 수가 많을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며, 공변량 유무와 관련 없이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한다는 단점을 극복한 방법으로(강윤경, 김지원, 홍세희, 2019; Vermunt, 2010), 잠재계층의 변수

와 영향 요인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강윤경 등, 2019)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결 과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총 연구 대상자 860명 중 ‘남성’은 452명(52.6%), ‘여성’은 408명(47.4%)이었다. 연령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40-49세’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남성 256명(56.6%)이 배우자가 있었으며, 여성 228명(55.9%)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배우자 유무는 이혼과 사별 모두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남성 237명(52.4%)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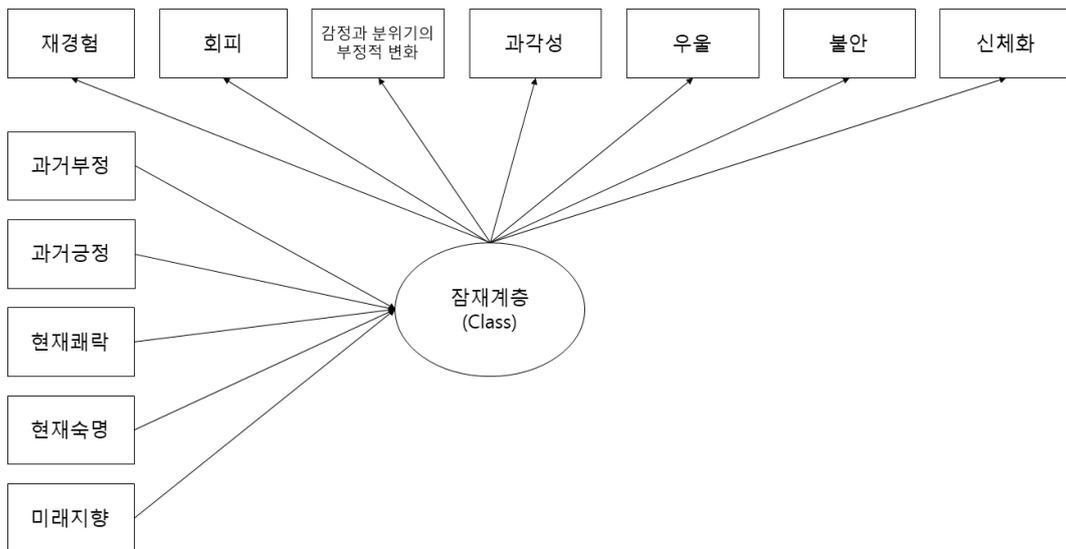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여성 210명(51.5%)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종교의 경우 남성 238명(52.7%)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 211명(51.7%)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경우 월 급여 수준으로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119명(2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121명(29.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1. 인구사회학적 정보

영향요인	남성(n=452)	여성(n=408)	
	n(%)	n(%)	
연령	20-29세(1)	96(21.2)	85(20.8)
	30-39세(2)	122(27.0)	117(28.7)
	40-49세(3)	143(31.6)	134(32.8)
	50-59세(4)	91(20.1)	72(17.6)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1)	0(0.0)	2(0.5)
	고등학교 졸업(2)	36(8.0)	74(18.1)
	대학교 재학(3)	31(6.9)	19(4.7)
	대학교 졸업(4)	316(69.9)	276(67.6)
	대학원 재학(5)	13(2.9)	3(0.7)
	대학원 졸업(6)	56(12.4)	34(8.3)
배우자 유무	없다(0)	196(43.4)	180(44.1)
	있다(1)	256(56.6)	228(55.9)
자녀유무	없다(0)	215(47.6)	198(48.5)
	있다(1)	237(52.4)	210(51.5)
종교유무	없다(0)	238(52.7)	211(51.7)
	있다(1)	214(47.3)	197(48.3)
월 급여 수준	100만원 미만(1)	38(8.4)	61(14.9)
	100만원-200만원 미만(2)	41(9.1)	93(22.8)
	200만원-300만원 미만(3)	93(20.6)	121(29.7)
	300만원-400만원 미만(4)	119(26.3)	52(12.7)
	400만원-500만원 미만(5)	57(12.6)	32(7.8)
	500만원-600만원 미만(6)	43(9.5)	22(5.4)
	600만원-700만원 미만(7)	26(5.8)	10(2.5)
	700만원-800만원 미만(8)	22(4.9)	12(2.9)
	800만원 이상(9)	13(2.9)	5(1.2)

외상사건 빈도분석 결과

DSM-5 진단기준 사건 중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였다고 다중 응답한 사건의 빈도는 표 2와 같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험 빈도는 0건(급작스러운 사고사)에서 285건(교통사고(예: 자동차 사고, 선박 사고, 기차 사고, 비행기 추락))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여성 또한 0건(급

작스러운 사고사)에서 196건(교통사고(예: 자동차 사고, 선박 사고, 기차 사고, 비행기 추락))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국내 성인의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잠재계층 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의 PTSD 증상 수

표 2. 연구 대상자의 외상노출 빈도

사건	남성(n=452)	여성(n=408)	전체
1. 자연재난(예 : 홍수, 태풍, 폭풍, 지진)	162(35.8%)	131(32.1%)	293(34.1%)
2. 화재 또는 폭발	88(19.5%)	37(9.1%)	125(14.5%)
3. 교통사고(예: 자동차 사고, 선박 사고, 기차 사고, 비행기 추락)	285(63.1%)	196(48.0%)	481(55.9%)
4. 직장, 집, 또는 여가 활동 중 심각한 사고	91(20.1%)	41(10.0%)	132(15.3%)
5. 독성 물질에 노출(예: 유독성 화학물질, 방사능)	25(5.5%)	17(4.2%)	42(4.9%)
6. 신체폭력(예: 공격당하거나, 가격당하거나, 따귀를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두들겨 맞음)	252(55.8%)	111(27.2%)	363(42.2%)
7. 무기로 공격당함(예: 총이나 칼에 맞거나, 칼, 총, 폭탄으로 위협 당함)	28(6.2%)	16(3.9%)	44(5.1%)
8. 성폭력(성폭행, 성폭행 시도, 완력이나 위협 하에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하게 됨)	11(2.4%)	57(14.0%)	68(7.9%)
9. 기타 원하지 않거나 불편한 성적 경험	43(9.5%)	170(41.7%)	213(24.8%)
10. 전투나 전쟁터에 노출(군 근무 또는 민간인으로서)	23(5.1%)	2(0.5%)	25(2.9%)
11. 감금(예: 납치, 유괴, 인질, 전쟁포로)	5(1.1%)	8(2.0%)	13(1.5%)
12. 목숨이 좌우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	79(17.5%)	54(13.2%)	133(15.5%)
13. 심각한 인간적 고난(예: 강제적인 노동, 지속적인 굶주림 또는 식량 부족, 지속적인 노숙 상태, 고문)	23(5.1%)	9(2.2%)	32(3.7%)
14. 급작스러운 변사(예: 살인, 자살)	28(6.2%)	26(6.4%)	54(6.3)
15. 급작스러운 사고사	0(0%)	0(0%)	0(0%)
16. 나 자신 때문에 발생했던 다른 사람의 심각한 부상, 상해 또는 사망	23(5.1%)	5(1.2%)	28(3.3%)
17. 그 밖의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경험	80(17.7%)	103(52.2%)	183(21.3%)

표 3. 성별에 따른 잠재계층의 적합도 지수

모형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남성(n=452)						
2계층모형	6967.780	7058.281	6988.460	0.963	0.0000	0.0000
3계층모형	6480.371	6603.782	6508.573	0.913	0.0012	0.0000
4계층모형	6169.312	6325.632	6205.033	0.927	0.1525	0.0000
여성(n=408)						
2계층모형	6619.394	6707.642	6637.833	0.949	0.0000	0.0000
3계층모형	6285.080	6405.418	6310.223	0.906	0.0576	0.0000
4계층모형	6073.854	6226.282	6105.702	0.905	0.5548	0.0000

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잠재 계층 분류를 위해 실시한 LPA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성과 여성 모두 최소 2개에서 4개의 집단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확인한 결과 남성은 계층이 증가할수록 AIC와 BIC, saBIC 지수가 낮아졌으며, Entropy 지수는 모두 0.8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LMR 지수의 경우 3계층까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남성 집단의 경우 3계층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집단의 경우 계층이 증가할수록 AIC와 BIC, saBIC 지수가 낮아졌으며, Entropy 지수는 모든 계층에서 0.8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LMR 지수의 경우 2계층까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여성 집단의 경우 2계층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국내 성인의 PTSD 증상 수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잠재계층 형태

국내 성인의 PTSD 증상 수준과 심리적 디

스트레스에 따라 나타난 계층의 모형은 표 4와 그림 2와 같다. 남성 계층 중 첫 번째 계층은 총 195명(43.1%)이 포함된 집단으로 PTSD 증상 수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모두 매우 낮은 집단이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계층은 총 137명(30.3%)이 포함된 집단으로 PTSD 증상 수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중간 수준을 보여 ‘스트레스 중간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 계층 중 세 번째 계층은 총 120명(26.5%)이 포함된 집단으로 PTSD 증상 수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 모두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스트레스 고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여성 계층 중 첫 번째 계층은 총 265명(65.0%)이 포함된 집단으로 PTSD 증상 수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모두 매우 낮은 집단이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계층은 총 143명(35.0%)이 포함된 집단으로 PTSD 증상 수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 ‘스트레스 고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4. 집단 별 평균 및 표준오차

변수	남성			여성		
	스트레스 저집단 (n=195)	스트레스 중간집단 (n=137)	스트레스 고위험집단 (n=120)	스트레스 저집단 (n=265)	스트레스 고위험집단 (n=143)	
	M(SD)	M(SD)	M(SD)	M(SD)	M(SD)	
PTSD 증상	재경험	0.250(0.029)	1.323(0.097)	2.115(0.071)	0.611(0.046)	2.062(0.085)
	회피	0.301(0.049)	1.809(0.114)	2.286(0.085)	0.992(0.070)	2.228(0.091)
	감정과 분위기의 부정적 변화	0.249(0.032)	1.185(0.078)	2.162(0.072)	0.552(0.043)	2.086(0.067)
	과각성	0.146(0.029)	0.916(0.068)	2.150(0.075)	0.360(0.033)	1.995(0.076)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	0.650(0.063)	1.089(0.085)	2.324(0.074)	0.849(0.048)	2.287(0.086)
	불안	0.380(0.054)	0.825(0.076)	2.239(0.070)	0.592(0.039)	2.015(0.088)
	신체화	0.351(0.049)	0.717(0.077)	2.055(0.069)	0.529(0.037)	1.779(0.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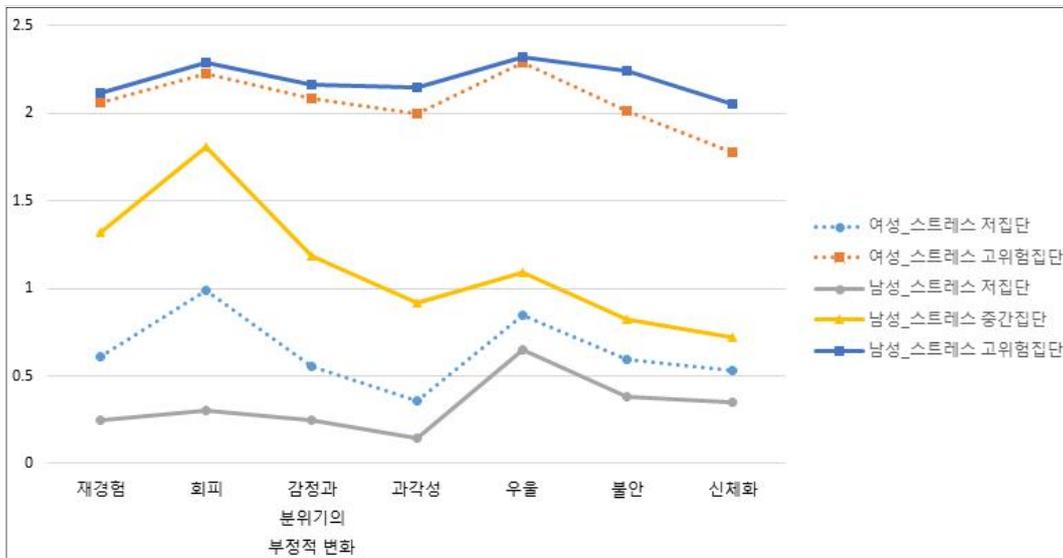


그림 2. 성별에 따른 국내 성인의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잠재계층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 검증

외상사건을 경험한 국내 성인의 PTSD 증상 수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잠재 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3 단계 접근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남성과 여성 각각 표 5, 표 6과 같다. 남성의 경우 준거집단인 ‘스트레스 저집단’

표 5. PTSD 증상 수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계층 분류의 영향요인 검증 결과(남성)

구분		준거집단: 스트레스 저집단		준거집단: 스트레스 중간집단	
		스트레스 중간집단	스트레스 고위험집단	스트레스 고위험집단	
		Est(S.E.)	Est(S.E.)	Est(S.E.)	
남성	시간관	과거부정	0.663(0.205)***	1.002(0.235)***	0.339(0.221)
		과거긍정	-0.097(0.223)	-0.136(0.254)	-0.039(0.223)
		현재쾌락	0.278(0.202)	1.200(0.237)***	0.922(0.219)*
		현재숙명	-0.276(0.217)	-0.526(0.297)	-0.25(0.267)
		미래지향	-0.269(0.202)	-0.480(0.246)	-0.211(0.240)

표 6. PTSD 증상 수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른 계층 분류의 영향요인 검증 결과(여성)

구분		준거집단 : 스트레스 저집단	
		스트레스 고위험집단	Est(S.E.)
여성	시간관	과거부정	1.071(0.237)***
		과거긍정	-0.244(0.197)
		현재쾌락	0.695(0.205)***
		현재숙명	-0.459(0.225)*
		미래지향	-0.134(0.216)

과 비교집단인 ‘스트레스 중간집단’을 비교한 결과 과거부정(Est=0.663, $p<0.001$)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저집단’보다 ‘스트레스 중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준거집단인 ‘스트레스 저집단’과 ‘스트레스 고위험집단’을 비교한 결과 과거부정(Est=1.002, $p<0.001$)과 현재쾌락(Est=1.200, $p<0.001$)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저집단’보다 ‘스트레스 고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준거 집단인 ‘스트레스 중간집단’과 비교집단인 ‘스트레스 고위험집단’을 비교한 결과 현재쾌락(Est=0.922, $p<0.05$)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저 집단’보다 ‘스트레스 고위험집단’에 속할 확률

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준거집단인 ‘스트레스 저집단’과 비교집단인 ‘스트레스 고위험집단’을 비교한 결과 과거부정(Est=1.071, $p<0.001$)과 현재 쾌락(Est=0.695, $p<0.001$)이 높을수록, 현재숙명(Est=-0.459, $p<0.05$)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저 집단’보다 ‘스트레스 고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외상경험자가 보고하는 PTSD 증

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우울, 불안, 신체화) 수준에 따른 잠재 계층을 성별에 따라 확인하기 위하여 LPA를 사용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잠재계층을 통해 증상 수준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시간관(과거 부정, 과거긍정, 현재쾌락, 현재숙명, 미래)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잠재 집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3계층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저위험집단, 스트레스 중간집단, 스트레스 고위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여성의 경우, 2계층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집단은 스트레스 저위험집단, 스트레스 고위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외상을 경험한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집단의 수와 심리적 증상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PTSD 증상 수준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다수의 선행연구(Chung & Breslau, 2008; Guffanti, et al., 2016; Guina, Nahhas, Kawalec, & Farnsworth, 2016) 및 외상사건 경험자가 보고하는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Hourani, Williams, Bray & Kandel, 2015; Leach et al., 2008; Schuch, Roest, Nolen, Penninx, & De Jonge, 2014)에 의해 뒷받침 된다. 또한 국내외 연구에서 성별은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심은정, 2016; 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김시형, 최수정, 2017;

Costello et al., 2002; Frazier et al., 2009). 더 나아가, 국내 외상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외상경험자의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남녀 간 차이는 충분히 확인되어 왔으나(심은정, 2016; 안현의 등, 2012; Hourani et al., 2015; Leach et al., 2008), 동시에 발견되는 각 증상들의 양상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외상사건 경험자가 보고하는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국내 외상사건 경험자들의 증상 수준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심리개입을 실시하기에 앞서 성별이라는 변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외상경험 이후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양상을 각각 확인하여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PTSD 증상 중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모든 집단에서 회피증상이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디스트레스에서는 우울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하여 국내 외상경험자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모두 회피증상이나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SM-5에서 설명하는 PTSD 증상 중 회피란, 외상경험이 다시 떠오르게 하는 활동들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이수림, 2015). 이러한 경험의 회피는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증상 중 하나이다. ACT에서는 개인이 순간순간 지각하는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증상들을 치료하고자 한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이 외에도, 시간관 치료(Time Perspective Therapy)는 외상경험자들은 외상사건 이후 시간관의 편향 및 인지, 정서 영역에서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Sword et al., 2014), 이는 이들의 PTSD 증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Resick, Monson, & Chard, 2016). 시간관 치료는 PTSD 증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법으로, 시간관 이론과 인지행동치료를 접목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Sword et al., 2014). 따라서 이러한 치료는 외상경험자가 균형잡힌 시간관을 형성하여 과거 경험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심리적 불편감을 감소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수용전념치료나 시간관치료와 같이 외상경험자들의 다양한 심리증상 중 특히 회피와 우울증상 전반을 다뤄줄 수 있는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둘째, 각 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관(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쾌락, 현재숙명, 미래)의 영향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시간관 척도의 5개의 하위요인 중 과거부정과 현재쾌락 요인에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남성은 과거부정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저위험집단보다 스트레스 중간집단 또는 스트레스 고위험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으며, 현재쾌락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저위험집단보다는 스트레스 고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과거부정, 현재쾌락, 현재숙명 요인에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여성은 과거부정과 현재쾌락이 높고 현재숙명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저위험집단

보다 스트레스 고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많은 선행연구는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시간관을 설명하고 있으며(Cole, Andretta, & McKay, 2017; McKay et al., 2017; Papastamatelou, Unger, Giotakos, & Athanasiadou, 2015; Place et al., 2018), 특히 과거부정과 현재숙명 요인은 우울과 불안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Anagnostopoulos & Griva, 2012; Carelli, et al., 2011)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시간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Ely & Mercurio, 2011). 최근 연구동향에 따르면 시간관은 외상경험자의 PTSD 증상 수준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치료적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word, Sword, Brunskill, & Zimbardo, 2014; Stolarski & Cyniak-Cieciura, 2016; Zimbardo, Sword, & Sword, 2012). 예를 들어, Sword 등(2014)은 PTSD를 치료할 목적으로 시간관 치료(Time Perspective Therapy)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시간관 치료는 신체적 학대, 자연재해와 같은 외상사건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증의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관 치료는 전통적, 개인적, 그리고 기질적 접근에 따라 인간의 행동 결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PTSD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Sword et al., 2014). 본질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내러티브 치료의 한 분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내담자는 치료 내에서 그들의 트라우마 사건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에 개입된다. 시간관 치료자는 이러한 부정적 스토리를 새로운 내러티브로 대체하도록 작업하며, 특히 6개의 시간관을 재구성하게 되면서 내담

자는 시간관 치료의 실천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이는 증상의 재발 (relapse)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 (Sword et al., 2014). 이에, 국내에서도 이미 다수의 시간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권도연, 2019; 김범준, 2014; 한정숙, 최윤경, 2014), 특히 권도연(2019)은 외상경험자를 대상으로 시간관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시간관치료가 외상 후 인지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더불어 외상 후 증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고하는 시간관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개입 및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시간관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적으며, 특히 외상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경험하는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시간관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외상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PTSD 증상과 디스트레스와 시간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같은 외상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상황에서 시간관의 역할에 대한 검증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하는 외상경험자의 시간관은 개인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특히 과거 외상경험으로 인하여 PTSD 증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관의 균형이 붕괴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과거의 순간을 회상하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 받는다고 하였다(Zimbardo et al., 2012). 따라서 이러한 외상경험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영역이 편향되어 있거

나 와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Dunkel & Weber, 2010). 이러한 시간의 편향은 외상경험 이후 PTSD 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되고 있으며(Zimbardo & Boyd, 2008), 특히 외상사건 경험자들의 부정적 인지 및 정서를 완화함에 있어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간관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시간관 치료(Time Perspective Therapy)의 효과성이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확인되었다(권도연, 2019; Sword et al., 2014). 시간관 이론을 주장한 Zimbardo와 Boyd(2015)는 외상경험자들은 과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하여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며, 시간관은 심리적 안녕, 행복, 마음챙김과 같은 긍정적 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Ge, Wu, Li, & Zheng, 2019; Holman, Silver, Mogle, & Scott, 2016; Sailer, et al., 2014). 이를 통해 외상경험자의 시간관의 편향을 확인하고 균형 잡힌 시간관으로 재구조화 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은 이들의 심리적 증상들을 감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미래지향 시간관은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바탕으로(Baldensperger, Wiedemann, Wessel, Keilholz, & Knoll, 2018), 내담자의 부정적 증상들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 경험들을 배가시킬 수 있는 심리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시간관이라는 변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대상

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며, 연구 대상자의 객관식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기억을 바탕으로 응답하여 응답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응답자 사전조사 및 인터뷰가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응답을 확보할 수 있는 주관식 질문을 설문 또한 연구 신뢰성 확보에 유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 시간관 이론에서 균형 잡힌 시간관 및 초월적 시간관 또한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Zimbardo와 Boyd(1999)가 개발한 원 척도인 짐바르도 시간관 검사지에 포함된 5가지 하위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후속연구는 균형 잡힌 시간관과 초월적 시간관 변인을 포함하여 외상경험자가 보고하는 시간관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시간관이 외상경험자의 PTSD 증상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계층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시간관 변인만을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긍정요인(자존감, 낙관성 등) 또는 부정요인(정서조절 어려움, 아동기 학대외상 등)들을 포함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여 외상경험자들이 보고하는 증상 수준에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다양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사건을 경험한 기간이 상이함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기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상경험자의 PTSD 증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계층 구분에 미치는 시간관의 영향을 확인하여 국내 외상관련에서 시간관이라는 변인을 중점으로 다루는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를 지닌다. 시간관은 외상경험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개인이 보고하는 시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상사건 경험자가 보고하는 편향된 시간관 및 균형 잡힌 시간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시간관이라는 변인을 활용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윤경, 김지원, 홍세희 (2019).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따른 프로파일의 잠재전이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장애와 고용*, 29(1), 35-6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국민관심질병통계.
- 권도연 (2019). 시간관 치료(time perspective therapy)가 외상 경험자들의 인지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범준 (2014). 시간관과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49-67.
- 김지윤, 이동훈, 이덕희 (2018). DSM 진단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건의 직, 간접 경험 여부에 따른 심리적 기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25-1153.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 (BSI-18)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507-521.

- 박희은, 김기호, 이장한 (2017). 한국형 스웨덴 짐바르도 시간관 설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19(1), 489-502.
- 신지영, 이동훈, 이수연, 한윤선 (2015). 대학생이 경험하는 외상사건 유형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9(2), 69-95.
- 심은정 (2016)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의 유병률과 관련 요인. *청소년학연구*, 23(12), 663-689.
- 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성별에 따른 외상관련 정서가 PTSD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5), 2363-2378.
- 윤소정, 김정섭 (2012).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2), 587-606.
- 이덕희 (2019). 한국판 단축형 짐바르도 시간관 척도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훈, 김지운, 이덕희, 강민수 (2018). DSM 진단기준과 대인 및 비대인 외상사건에 따른 성인의 PTSD 증상, 심리적 디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741-773.
-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김시형, 최수정 (2017). 성별에 따른 외상사건 경험이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227-253.
- 이수림 (2015). 외상 경험 및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39, 93-124.
- 한정숙, 최윤경 (2014). 이혼경험자의 인지적 유연성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시간관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217-237.
- 홍세희 (2019). 잠재계층, 잠재전이, 성장혼합 모형. *연구방법론 집중 워크샵*. 서울: 박영사.
- Armour, C., Contractor, A., Elhai, J. D., Stringer, M., Lyle, G., Forbes, D., & Richardson, J. D. (2015). Identifying latent profiles of posttraumatic stress and major depression symptoms in Canadian veterans: Exploring differences across profiles in health related functioning.. *Psychiatry Research*, 228(1), 1-7.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agnostopoulos, E., & Griva, F. (2012). Exploring time perspective in Greek young adults: Validation of th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and relationships with mental health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6(1), 41-59.
- Baldensperger, L., Wiedemann, A. U., Wessel, L., Keilholz, U., & Knoll, N. (2018). Social network, autonomy, and adherence correlates of future time perspective in patients with head and neck cancer. *Psycho Oncology*, 27(6), 1545-1552.
- Başoğlu, M., Livanou, M., Crnobaric, C., Frančičković, T., Suljić, E., Đurić, D., &

- Vranešić, M. (2005). Psychiatric and cognitive effects of war in former Yugoslavia: association of lack of redress for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s. *Jama*, 294(5), 580-590.
- Ben Ezra, M., Karatzias, T., Hyland, P., Brewin, C. R., Cloitre, M., Bisson, J. I., ... & Shevlin, M. (2018).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complex PTSD (CPTSD) as per ICD 11 proposals: A population study in Israel. *Depression and Anxiety*, 35(3), 264-274.
- Blix, I., & Brennen, T. (2011). Mental time travel after trauma: The specificity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and future-directed thoughts. *Memory*, 19(8), 956-967.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
- Boniwell, I., & Zimbardo, P. G. (2004). Balancing time perspective in pursuit of optimal functioning.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12, 141-155.
- Breslau, N., Reboussin, B. A., Anthony, J. C., & Storr, C. L. (2005). The struct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latent class analysis in 2 community samp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12), 1343-1351.
- Brewin, C. R., Dalgleish, T., & Joseph, S. (1996). A dual representation theor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ological Review*, 103(4), 670.
- Carelli, M. G., Wiberg, B., & Wiberg, M. (2011).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wedish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 Chung, H., & Breslau, N. (2008). The latent struct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ests of invariance by gender and trauma type. *Psychological Medicine*, 38(4).
- Clark, S. L., & Muthén, B. O.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Retrieved from <http://www.statmodel.com/papers.shtml>
- Cole, J. C., Andretta, J. R., & McKay, M. T. (2017).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the viability and meaningfulness of time attitudes profiles in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6, 146-151.
- Contractor, A. A., & Weiss, N. H. (2019). Typologies of PTSD clusters and reckless/self-destructive behaviors: A latent profile analysis. *Psychiatry Research*, 272, 682-691.
- Costello, E. J., Erkanli, A., Fairbank, J. A., & Angold, A. (2002). The prevalence of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5(2), 99-112.
- Derogatis, L. R. (1977). *SCL-90(Revised) Manual I. Clinical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Derogatis, L. R. (2001). Brief Symptom Inventory(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manual. *Minneapolis: NCS Pearson, Inc.*
- Drake, L., Duncan, E., Sutherland, F., Abernethy,

- C., & Henry, C. (2008). Time perspective and correlates of wellbeing. *Time & Society, 17*(1), 47-61.
- Dunkel, C. S., & Weber, J. L. (2010). Using three levels of personality to predict time perspective. *Current Psychology, 29*(2), 95-103.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Ehlers, A., Hackmann, A., & Michael, T. (2004). Intrusive re experiencing i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henomenology, theory, and therapy. *Memory, 12*(4), 403-415.
- Ely, R., & Mercurio, A. (2011). Time perspective and autobiographical memory: Individual and gender differences in experiencing time and remembering the past. *Time & Society, 20*(3), 375-400.
- Frazier, P., Anders, S., Perera, S., Tomich, P., Tennen, H., Park, C., & Tashiro, T. (2009). Traumatic event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Prevalence and associated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3), 450.
- Feeny, N. C., & Foa, E. B. (2006). Cognitive vulnerability to PTSD. In L. B. Alloy and J. H. Riskind (Eds.), *Cognitive Vulnerability to Emotional Disorders* (pp. 285-30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alea, S., & Resnick, H. (200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general population after mass terrorist incidents: Considerations about the nature of exposure. *CNS Spectrums, 10*(2), 107-115.
- Ge, J., Wu, J., Li, K., & Zheng, Y. (2019). Self-compa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mediates the Impact of mindfulness on balanced time perspective in chinese college students. *Frontiers in Psychology, 10*, 367.
- Greene, B. A., & DeBacker, T. K. (2004). Gender and orientations toward the future: Links to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2), 91-120.
- Gruber, J., Cunningham, W. A., Kirkland, T., & Hay, A. C. (2012). Feeling stuck in the present? Mania proneness and history associated with present-oriented time perspective. *Emotion, 12*, 13-17.
- Guffanti, G., Geronazzo Alman, L., Fan, B., Duarte, C. S., Musa, G. J., & Hoven, C. W. (2016). Homogeneity of sever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profil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cross gender, age, and traumatic experiences related to 9/11.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9*(5), 430-439.
- Guina, J., Nahhas, R. W., Kawalec, K., & Farnsworth, S. (2016). Are gender differences in DSM-5 PTSD symptomatology explained by sexual trauma?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8.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152.
- Hill, K. G., White, H. R., Chung, I. J.,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 and variable 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and*

- Experimental Research*, 24(6), 892-901.
- Holman, E. A., Silver, R. C., Mogle, J. A., & Scott, S. B. (2016). Adversity, time, and well-being: A longitudinal analysis of time perspective in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31(6), 640.
- Hourani, L., Williams, J., Bray, R., & Kandel, D. (2015).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PTSD symptoms among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9, 101-108.
- Hruska, B., Irish, L. A., Pacella, M. L., Sledjeski, E. M., & Delahanty, D. L. (2014). PTSD symptom severity and psychiatric comorbidity in recent motor vehicle accident victims: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8(7), 644-649.
- Jongedijk, R. A., van der Aa, N., Haagen, J. F., Boelen, P. A., & Kleber, R. J. (2019). Symptom severity in PTSD and comorbid psychopathology: A latent profile analysis among traumatized veteran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62, 35-44.
- Kessler, R. C. (2006). The epidemiology of depression among women. *Women and Depression: A Handbook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22-37.
- Košťál, J., Klicperová-Baker, M., Lukavská, K., & Lukavský, J. (2016). Short version of the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short) with and without the Future-Negative scale, verified on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s. *Time & Society*, 25(2), 169-192.
- Lasane, T. P., & O'Donnell, D. A. (2005). Measurement of temporal orientation: A conceptual approach. In A. Strathman & J. Joireman (Eds.), *Understanding behavior in the context of time: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11-30).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ayne, C. M., Warren, J. S., Watson, P. J., & Shalev, A. Y. (2007). Risk, vulnerability, resistance, and resilience: toward an integrative conceptualization of posttraumatic adaptation. In M. Friedman, T. Keane, & P. Resick (Eds.), *Handbook of PTSD: Science and practice* (pp. 497-520). New York: Guilford Press.
- Leach, L. S., Christensen, H., Mackinnon, A. J., Windsor, T. D., & Butterworth, P. (2008).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nxiety across the adult lifespan: the role of psychosocial mediato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3(12), 983-998.
- Lev Wiesel, R., & Amir, M. (2000).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 resources, and quality of life in four groups of Holocaust child survivors. *Family Process*, 39(4), 445-459.
- Marshall, G. N., Schell, T. L., & Miles, J. N. (2010). All PTSD symptoms are highly associated with general distress: Ramifications for the dysphoria symptom clust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1), 126.
- McKay, M. T., Andretta, J. R., & Cole, J. C. (2017). How Individuals Feel Abou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Bears Little Relation to Alcohol-Related Problems, Anxiety, and Depression: A Person-Centered Analysis in a University Sample. *Substance Use & Misuse*, 52(6), 734-741.
- Montazeri, A., Baradaran, H., Omidvari, S., Azin,

- S. A., Ebadi, M., Garmaroudi, G., ... & Shariati, M. (2005).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Bam earthquake survivors in Iran: a population-based study. *BMC Public Health*, 5(1), 4.
- Neria, Y., Nandi, A., & Galea, S. (2008).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disaster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ical Medicine*, 38(4), 467-480.
- Nugent N. R., Koenen K. C., Bradley B. (2012). Heterogeneity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a highly traumatized low income, urban, african american sampl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6(12), 1576-1583.
- Nyberg, L., Kim, A. S., Habib, R., Levine, B., & Tulving, E. (2010). Consciousness of subjective time in the brai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1), 22356-22359.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Otrar, M., Eksi, H., Dilmac, B., & Sikin, A. (2002). The sources of stress,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urkic and relative societies' students in Turkey. *EDAM Egitim Danismanligi Ve Arastirmalari Merkezi*, 2, 473-506.
- Papastamatelou, J., Unger, A., Giotakos, O., & Athanasiadou, F. (2015). Is time perspective a predictor of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Some preliminary results from Greece. *Psychological Studies*, 60(4), 468-477.
- Place, P. J., Ling, S., & Patihis, L. (2018). Full statistical medi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and depressive symptom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3(2), 142-149.
- Rahman, A. F., Manatunga, A., Guo, Y., Peng, L., Warnock, M., Ressler, K. J. & Jovanovic, T. (2018). A latent class analysis of PTSD symptoms among inner city primary care 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98, 1-8.
- Resick, P. A., Monson, C. M., & Chard, K. M. (2016).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for PTSD: A comprehensive manual*. New York: Guilford Press.
- Rosellini, A. J., Coffey, S. F., Tracy, M., & Galea, S. (2014). A person-centered analysi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Predictors of latent class membership.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8(1), 16-24.
- Sailer, U., Rosenberg, P., Al Nima, A., Gamble, A., Gärling, T., Archer, T., & Garcia, D. (2014). A happier and less sinister past, a more hedonistic and less fatalistic present and a more structured future: time perspective and well-being. *PeerJ*, 2, e303.
- Schuch, J. J., Roest, A. M., Nolen, W. A., Penninx, B. W., & De Jonge, P. (2014). Gender differences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results from the Netherlands study of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6, 156-163.
- Sobol-Kwapinska, M., & Jankowski, T. (2016). Positive time: Balanced time perspective and positive orienta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 17(4), 1511-1528.
- Steenkamp, M. M., Nickerson, A., Maguen, S., Dickstein, B. D., Nash, W. P., & Litz, B. T. (2012). Latent classes of PTSD symptoms in Vietnam veterans. *Behavior Modification, 36*(6), 857-874.
- Stolarski, M., & Cyniak-Cieciura, M. (2016). Balanced and less traumatized: Balanced time perspectiv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everity of PTSD syndrome in motor vehicle accident survivor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1*, 456-461.
- Stolarski, M., Fieulaine, N., & van Beek, W. (2015). *Time perspective theory: Review, research, and application*. Cham: Springer International.
- Sword, R. M., Sword, R. K., Brunskill, S. R., & Zimbardo, P. G. (2014). Time perspective therapy: A new time-based metaphor therapy for PTSD. *Journal of Loss and Trauma, 19*(3), 197-201.
- T. Zimmermann. (2015). Cancer: Psychosocial aspects. In J. D. Wright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pp. 73-77). Elsevier: Oxford.
- Tarrier, N., & Gregg, L. (2004). Suicide risk in civilian PTSD pati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9*(8), 655-661
- Tay, A. K., Rees, S., Steel, Z., Tam, N., Soares, Z., Soares, C., & Silove, D. M. (2016). Six-year trajectories of post-traumatic stress and severe psychological distress symptoms and associations with timing of trauma exposure, ongoing adversity and sense of injustice: a latent transition analysis of a community cohort in conflict-affected Timor-Leste. *BMJ open, 6*(2), e010205.
- Torres, L., Miller, M. J., & Moore, K. M. (2013). Factorial invariance of the Brief Symptom Inventory-18 (BSI-18) for adults of Mexican descent across nativity status, language format, and gender. *Psychological Assessment, 25*(1), 300.
- Usunier, J. C., & Valette-Florence, P. (2007). The time styles scale: A review of developments and replications over 15 years. *Time & Society, 16*(2-3), 333-366.
- van Beek, W., Berghuis, H., Kerkhof, A., & Beekman, A. (2010). Time perspective,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Zimbardo's time perspective inventory in psychiatry. *Time & Society, 20*, 364-74.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In J. Hagenaars, & A. McCutcheon (Ed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pp. 89-10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ng, W. R., Wang, W. L., Wang, S. C., Tsai, Y. C., Lai, C. H., & Yeh, J. W. (2012). Effects of Al addition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y of Al_xCoCrFeNi high-entropy alloys. *Intermetallics, 26*, 44-51.
- Weathers, F. W., Blake, D. D., Schnurr, P. P., Kaloupek, D. G., Marx, B. P., & Keane, T. M. (2013). The life events checklist for DSM-5 (LEC-5). Instrument available from the National Center for PTSD.
- Weathers, F. W., Litz, B. T., Herman, D. S.,

- Huska, J. A., & Keane, T. M. (1993). The PTSD Checklist (PCL): Reliability, validity, and diagnostic utility. In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San Antonio, TX (Vol. 462).
- Webster, J. D., & Ma, X. (2013). A balanced time perspective in adulthood: Well-being and developmental effects.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32(4), 433-442.
- Zhang, J. W., Howell, R. T., & Stolarski, M. (2013). Comparing three methods to measure a balanced time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a balanced time persp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1), 169-184.
- Zimbardo, P. G., & Boyd, J. N. (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 difference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271-1288.
- Zimbardo, P., & Boyd, J. (2008). *The time paradox: The new psychology of time that will change your life*. Simon and Schuster.
- Zimbardo, P. G., & Boyd, J. N. (2015).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In *Time perspective theory; review, research and application* (pp. 17-55). Springer, Cham.
- Zimbardo, P., Sword, R., & Sword, R. (2012). *The time cure: Overcoming PTSD with the new psychology of time perspective therapy*. John Wiley & Sons.
- Zlomuzica, A., Woud, M. L., Machulska, A., Kleimt, K., Dietrich, L., Wolf, O. T., ... & Margraf, J. (2018). Deficits in episodic memory and mental time travel in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and Biological Psychiatry*, 83, 42-54.

원 고 접 수 일 : 2019. 11.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3. 02

게재결정일 : 2020. 04. 16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PTSD Symptom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Traumatized People: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and The Influence of Time Perspectives

Deok Hee Lee

Dong Hun Lee

Ha Young Jung

Seul Ki Nam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rofessor

graduate student

graduate studen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subgroups among Korean adults who experienced DSM-5-defined traumatic events that differed by severity of PTSD symptom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nalyze the influence of time perspectives on classification, and explore gender differences in patterns of severity. A total of 1,137 South Korean adults completed the survey. Latent Profil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data from 860 participants who reported DSM-5-defined traumatic events. In men, a three-class model best fit the data with a 'mild stress class', 'moderate stress class', and 'severe stress class'. In women, a two-class model best fit the data with a 'mild stress class' and 'severe stress class'. The predictor analysis showed that 'Past Negative,' and 'Present Hedonistic'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men; while 'Past Negative,' and 'Present Fatalistic'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women. In light of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 are discussed.

Key words : adult, PTSD symptoms, psychological distress, time perspectives, latent profile analysis